

지난해 ‘인재불사에 6억원’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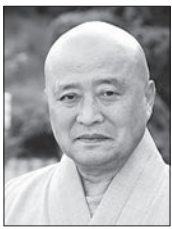
4무 현응스님, 동국대에 또 1억

30년 된 승복을 께매 입는 ‘누더기 스님’이 1억 원을 기부해 화제가 되고 있다. 동국대(총장 김희옥)는 지난 3일 “그동안 학교에 7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전달한 부산 영일암 주지 현응스님(사진)이 또 다시 1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26일 학교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은행계좌 입금내역을 확인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2013년 5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6억을 기부한 현응스님 명의로 또 다시 1억 원이 입금되어 있었던 것.

곧바로 전화를 건 직원에게 스님은 별일 아니라는 듯 차분하게 “소유를 두지 않고 청빈한 삶을 사는 것이 출가 수행자의 당연한 본분”이라며 “수행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재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재불사를 위해 보시하겠다는 생각으로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응스님은 사람이 소재한 기장군에서 4무(無) 스님으로 통한다.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자동차, 인터넷



넷을 일절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됐다. 40대 중반에 출가해 출가할 때 생긴 30년 된 승복을 아직도 기워 입으며 지낸다. 수십 차례 께매 입기를 반복한 승복은 이제 낡고 해져 더 이상 손볼 곳조차 없는 상태다. ‘누더기 스님’으로 불리게 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스님은 또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을 매학기 동국대에 전달해오고 있다.

계속된 스님의 자비행에 감동한 신도들이 이전보다 더 많은 보시금을 시주했지만 스님은 이마저도 인재양성을 위해 회향했다. 스님은 “심시일반 모든 정성이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는데 사용된다면 그보다 의미 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국대는 이번에 전달받은 기부금을 ‘동국대학교 건학108주년기념관’ 건립에 사용할 예정이다.

홍디영 기자 hong12@ibulgyo.com



지난 8월 29~30일 ‘국제개발 활동가 워크숍 및 힐링캠프’ 참가자.

“경험 공유, 불교협력 사업 연구에 도움”

국제개발 활동가 워크숍 ‘호응’

불교계 국제개발협력 활동가들이 모여 교류와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8월29일과 30일 이틀간 양평에서 ‘국제개발협력 활동가 워크숍 및 힐링캠프’를 개최했다.

이날 캠프에는 아프리카, 로터스월드, 엔지오 비유디, 위드아시아, 지구촌공생회, 한국YBA 등 총 7개 단체 18명의 국제활동가들이 참여해 국제사업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며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캠프는 최종한 사무국장의 인사말과 조계종복지재단 강영규 실장이 ‘에니어그램’을 통한 자기발

견과 성장’을 강의하고, 이어 각 기관의 비전을 소개하는 시간과 토론으로 진행됐다. 민정희 로터스월드 사무국장은 “현재 불교계에서는 18개 이상의 단체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다양한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캠프를 통해 각 단체의 현지 노하우를 공유하고, 불교적 가치에 기반을 둔 국제협력 사업 연구에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이후 지속적인 모임을 개최하는 한편, 보다 많은 교계 국제활동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 간다는 계획이다. 안직수 기자



노사분규와 정리해고, 비정규직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마련해 온 조계종 노동위원회가 제2기 위원들을 위촉하고 새롭게 진용을 갖췄다. 왼쪽부터 박문진 전 부위원장, 제마스님, 동환스님, 정문스님, 총무원장 자승스님, 해응스님, 덕본스님, 도철스님, 유승무 교수, 권승복 전 위원장.

관심차원 넘어 현장활동 단계 들어서

제2기 노동위원회 출범

운동가 교수 변호사 등 노동문제 전문가로 꾸려

노사분규와 정리해고,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계 주요 현안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마련해 온 조계종 노동위원회가 새롭게 진용을 갖췄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제2기 노동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2기 노동위원은 당연직 위원에는 정문스님(총무원 사회부장)을 비롯해 해응스님(전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장), 덕본스님(유증사 사회국장), 도철스님(경

산 불광사), 동환스님(종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전수생), 효록스님(중앙승가대 강사), 제마스님(중앙승가대 박사과정), 권승복 전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박문진 전 민주노동당 부위원장,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 백신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2012년 출범 이후 노동위원회는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10만배 기도정진을 비롯해 철도노조 파업 중재, 노동자 심리치유 상담센터와 해고·파업 노동자를 위한 템플스테이 등을 통해 노동자들을 보듬어왔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노동위원 도철스님의 단식과 함께 3000배 정진을 진행하며 유가족들에게 힘을 보탰다.

2기 노동위원회 역시 1기의 성과를 계승하고 이를 강화해 나가는 일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불교계 내부의 노동문제에 대한 역량강화와 인식 확대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1기 노동위원으로 참여했던 도철스님, 동환스님, 권승복 위원장 등 5명을 재위촉했으며, 노동운동가, 교수, 변호사 등 노동문제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꾸렸다. 또 노동위원회의 다양한 사업을 집행할 집행위원회를 철도, 지하철, 공무원, 전교조, 학교비정규직 등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동자, 인권운동 활동가 15인으로 구성했다. 1기에 비해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호흡할 스님들의 참여를 확대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위촉식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그동안 개인적으로 노동운동에 관심을 갖고 계신 스님들은 있었지만 종단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현장에서 호흡을 맞춘 것은 2년 밖에 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노동자들의 편에서 노동문제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활동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노동위원회는 위촉식에 이어 노동위원과 집행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신임 노동위원장에 해응스님을, 수석부위원장에 덕본스님을, 부위원장에 권승복 전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을 선출했다. 이와 함께 세월호 특별법 제정 지원활동 등 주요 현안을 비롯해 하반기 주요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총무원장 직선 연대회의’ 발족

“승랍 10년 이상 선거권 부여해야”

조계종 총무원장 직선제를 요구하는 사부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연대모임을 결성했다.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 사부대중연대회의는 지난 2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사부대중연대회의는 창립취지문을 통해 “총무원장 직선제를 통해 소수에 의해 종단 운영이 좌지우지되는 폐해를 막고 수행기풍 진작의 초석을 다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은 총무원, 큰 교구’라는 슬로

건을 내걸고 “완전한 교구중심제를 실현함으로써 총무원장의 권한을 축소하고자 한다”면서 “인사와 재정, 재산처분권 등 사찰살림에 대한 주요권한을 교구가 가질 때만이 완전한 교구자치가 실현될 수 있으며, 총무원은 교구를 관리 및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감사권만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종회 종책모임인 삼화도량 소속 스님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모임은 전 호계원장 범등스님을 비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 사부대중연대회의’ 대표발기인과 공동집행위원장.

롯해 전 총무원 호법부장 도진스님,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원장 재연스님, 정상옥 전 대한불교청년회장 등 10여 명이 대표발기인으로 동참했다. 또 중앙종회의원 법민스님, 전 조계종 노동위원장 종호스님, 김경호 지지협동조합 이사장 등 10여 명이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았다. 연대모임은 앞으로 총무원이 입

법 발의한 준직선제인 ‘승랍 20년 이상 비구·비구니’를 ‘승랍 10년 이상 비구·비구니’로 낮춰 종단 스님 8000~9000여 명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종도들의 공의를 모아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부대중 서명운동, 교구 분·말사 순회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허정철 기자 hje@ibulgyo.com

“노동문제 불교적 해결에 최선”

신임 노동위원장 해응스님

“전임 위원장이었던 종호스님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노동위원회의 자리를 잘 닦아 놓았습니다. 소외되고 억압받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불교적으로 잘 해결하고 승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일 제2기 노동위원장으로 선출된 해응스님(사진)은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지난 2012년 노동위원회가 출범 이후 활발한 활동을 펼쳐며 노동자들에게 신뢰를 얻은 만큼 1기의 성과를 잘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중점을 두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노동위원회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운동을 비롯해 노동현장 성소수자 차별문제 토론회, 비정규직 학술 토론회, 종교간 노동문제 대응기구 구성, 동사섭법회, 노동자 명상 및 심리상담 등을 하반기 주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주요 현안인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해응스님은 “종단과 노동위원회 집행부 논의를 통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노동위원회 차원에서 동참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능력이 부족하지만 노동위원, 집행위원들과 함께 노동위원회를 잘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응스님은 1991년 성본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을 수료했다. 총무원 호법부 상임감찰, 총무원 사회국장, 조계종 종교평화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나주 운흥사 주지를 맡고 있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본·말사 주지 인사	
(9월3일 중무회의)	
	본묵스님 담당 호국사
지록스님 철곡 대둔사	육문스님 군위 법주사

제16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공고

종헌 제32조 내지 제34조, 제50조, 선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16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직선직 중앙종회의원
- 1. 선거 일시
불기2558(2014)년 10월 16일(음 9월 23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 2. 선거 교구 및 투표소 : 당해 교구(당해 교구본사)
- 3. 선거권자 자격
구족계를 수지한 비구로서
1) 당해 교구의 재적승
2) 당해 교구의 분말사 주지
3) 당해 교구본사에서 임명 받아 1년 이상 상근한 국장 이상의 중무원
4) 당해 교구에 4년 이상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고, 선거일 전 4년 이내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구가. 당해 교구 선원에서 8안거를 성만한 자나. 관할 본사에서 결계 및 포살을 8회 이상 참여한 자
※ 다만, 선거법 제15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
- 4. 거주승 신고기간
불기2558(2014)년 9월 11일(목) ~ 9월 17일(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5. 투표구 신청기간
(2개 교구 이상의 선거권이 있는 경우 본인이 투표하고자 하는 교구 신청기간)

불기2558(2014)년 9월 11일(목) ~ 10월 6일(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선거법 제24조 제4항 내지 제6항에 의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본인 이 투표하고자 하는 교구를 서면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①재직교구 ②주지 재직교구 ③본사국장 이상 중무원 재직교구 ④거주승 신청교구 순으로 투표구가 확정되므로 재직교구 이외의 교구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필히 투표구를 신청해야 함

- 6.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불기2558(2014)년 10월 7일(화) ~ 10월 9일(목)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7. 입후보자등록 · 거주승신고 · 선거인명부열람 장소
당해 교구본사 중무소
- 직능대표 및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 8. 선출 일자 : 불기2558(2014)년 10월 13일(음 9월 20일) 월요일
- 9. 입후보자 자격
직능대표 : 율원, 선원, 강원, 교육, 포교, 사회, 복지, 문화, 법제,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
비구니 :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 10. 입후보자 등록장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 공동 사항
- 11. 입후보자 자격 : 승납 15년, 연령 35세 이상의 종단 재적승으로서 선거법 제16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
- 12. 입후보자 등록기간
불기2558(2014)년 9월 22일(월) ~ 9월 24일(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선거법 제31조에 의거 경직을 할 수 없는 직에 해당하는 중무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9월 21일(일) 오후 5시까지 해당 중무직을 사직하여야 함
- 13. 입후보자 등록서류
 - 등록신청서(소정양식)..... 1부
 - 이력서 1부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제적등본(단, 출가년도 이후 분가를 인한 독호적, 호주승계나 본적지 1부 변경등에 의해 호적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 전 제적등본 일체를 추가 제출)
 - 신원조치서 1부
 - 명부 및 결과 승복 각서(소정양식) 1부
 - 투 · 개표참관인 신고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3매
- 문의처 : 당해 교구본사 중무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02-2011-1865)